

17세기 간행 四書諺解에 대한 종합적 연구*

- 간본의 계통과 經書字覆刻本의 형태서지적 분석을 중심으로 -

A Synthetic Study on Annotation of Fore Books(四書諺解) Published
in the 17th Century

: Make Systemetic and the Physical Bibliographic Analysis of
Gyongseojabokgakbon(經書字覆刻本)

옥 영 정 (Ok, Young-Jung)**

◁ 목 차 ▷

- | | |
|---------------------|----------------|
| 1. 서 언 | 3. 經書字 覆刻本の 검토 |
| 2. 17세기 四書諺解의 간행 | 3.1 1612년 내사본 |
| 2.1 사서의 간행과 언해 | 3.2 1631년 내사본 |
| 2.2 17세기 사서언해의 간행상황 | 4. 결 언 |
| 2.3 17세기 사서언해간본의 계통 | <참고문헌> |

<초 록>

이 연구에서는 17세기 서책간행의 인쇄문화사적 의의에 주목하고 이 시기에 간행된 「論語諺解」, 「孟子諺解」, 「中庸諺解」, 「大學諺解」 등의 四書諺解에 대하여 그 현전본과 간행지역, 형태서지적 특징 등을 체계적으로 고찰하여 판본의 계통을 세웠다.

또한 대표적 판본인 경서자복각본 계열의 사서언해에 대하여 판각방식과 그에 따른 새로운 판중의 구분, 각수의 표시 등 인쇄와 관련된 몇 가지 사실에 대한 형태서지학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특히 경서자 복각본과 그 계통의 판본은 17세기 사서언해 간본의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는 것으로 당시 보급을 위해 중앙에서 판각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같은 계통의 판본이 여러 차례 간행되고 보급되면서 유교윤리 강화와 사회기강 확립이라는 기본적 목적 외에 사대부를 대상으로 한 표준 교재의 정비에도 그 역할을 한 것으로 여겨진다.

要語 : 四書諺解, 論語諺解, 孟子諺解, 中庸諺解, 大學諺解, 經書字覆刻本

* 이 논문은 2004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협동연구지원사업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KRF-2004-042-H00006)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조교수(gabinja@aks.ac.kr)

접수일: 2005년 11월 30일 최초심사일: 2005년 11월 30일 심사완료일: 2005년 12월 17일

<ABSTRACT>

This study is to observe publishing cultural significance of publication in the 17th century and systemize block books through survey of existing prints, printing place, physical bibli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Annotation of Fore Books(四書諺解) published in the same times.

Tried to physical bibliographic analysis, related with style of engraving, classification of new kinds of prints and indication of wood engraver on The Annotation of Fore Books. Gyongseoja bokgakbon(經書字復刻本) and similar block books play an important part in the publications of The Annotation of Fore Books in the 17th century as a representative block book published by government offices. They were published in the metropolis for supply. Same category books were published and supplied several times. It realized basic objectives confucianism ethical reinforcement and social discipline establishment and helped to prepare standard teaching materials for the gentry.

Key words : The Annotation of Fore Books, Gyongseoja bokgakbon,
publications of The Annotation of Fore Books



1. 서 언

四書는 조선시대 유교의 기본경전으로 성리학의 도입 후 가장 널리 읽혀진 책이었다. 四書의 諺解는 이러한 사서에 구결을 달고 한글로 풀어 쓴 것이며, 1590년 頒賜된 교정청 간행 乙亥字體 經書字本(이하 經書字本으로 약칭)을 필두로 여러 차례 간행이 이루어졌다. 특히 17세기는 실질적인 사서언해 간본의 보급시기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민심을 수습하고 백성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간행한 여러 언해본 교화서가 이 시기에 함께 간행되었으며, 사회 전반의 변화와 함께 이후의 서책간행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 시기이기도 하다. 간행의 주체도 대부분 중앙관아의 주도로 기존의 四書諺解 판식을 그대로 따른 것이 많았지만 개인에 의해서 독특한 방식으로 간행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17세기 서책간행의 인쇄문화사적 의의에 주목하고 이 시기에 간행된 「論語諺解」, 「孟子諺解」, 「中庸諺解」, 「大學諺解」 등의 四書諺解에 대하여 그 현전본과 간행지역, 형태서지적 특징 등을 체계적으로 고찰하여 판본의 계통을 세우고자 한다. 아울러 대표적 판본인 경서자복각본 계열의 사서언해에 대하여 판각방식과 그에 따른 새로운 판종의 구분, 각수의 표시 등 인쇄와 관련된 몇 가지 사실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밝혀보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경서자복각본과 그 계통의 판본은 17세기 사서언해 간본의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는 것으로 여러 차례 간행되고 보급되면서 당시의 언어, 사상, 생활문화 등에 끼친 영향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四書에 대한 기존연구는 四書자체의 사상적 연구나 經學史 연구가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성립과 그 전래, 간행과 유포, 언해 등에 대하여 서지학, 역사학 및 국어학 등의 분야에서 연구가 이루어졌다. 서지학 및 역사학적 측면에서는 四書의 수용과 전개 및 판본으로서 간행 유포되는 과정을 살펴본 연구가 있으며,¹⁾ 국어학적 관점에서 다룬 것으로는 구결이나 언해에 관한 자료소개나 경서언

1) 정형우, “오경·사서대전전 수입 및 그 간행 광포” 『동방학지』 63(1989). 1-27.

해의 전반적인 성격과 내용을 다룬 연구가²⁾ 있다. 특히 언해서의 역사적 고찰로 세조 때의 경서구결과, 중세어 자료로서 한글문헌 연구,³⁾ 16세기의 경서언해에 대한 연구,⁴⁾ 근세국어자료로서 한글문헌에 대한 연구 등은⁵⁾ 17세기 사서언해의 연구를 위한 기본적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論語」와 「大學」의 판본에 대한 서지적 연구도 진행되었으며⁶⁾ 「論語諺解」, 「大學諺解」에 대한 판본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누락되거나 판본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고, 특히 17세기 사서언해간본과 관련하여서는 개인이 사사료이 간행한 판본에 대한 연구도⁷⁾ 진행된 바 있지만 17세기 전체의 사서언해 간본을 망라적으로 다루지는 않았다. 뿐만 아니라 이 자료들은 17세기 한국어 실태를 잘 반영하고 있는 국어학적 가치가 높은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이본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정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17세기 국어사전」⁸⁾ 등에 활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정호영, “논어의 성립과정과 그 전래 및 보급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대학원, 1989).

송정숙, “조선조에 있어서 사서의 수용과 전개-대학과 중용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대학원, 1994).

우정임, “조선초기 서적수입·간행과 그 성격-성리학서를 중심으로-,” 「釜大史學」 24 (2000. 6), 39-69.

2) 李忠九, “經書諺解 研究,”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1990).

3) 安秉禧, “世祖의 經書口訣에 대하여,” 「奎章閣」 7 (1983), 1-14.

安秉禧, “中世語의 한글資料에 대한 綜合的 考察,” 「奎章閣」 3 (1978), 109-148.

4) 金恒洙, “16世紀 經書諺解의 思想史的 考察,” 「奎章閣」 10 (1987), 17-40.

5) 洪允杓, “奎章閣 所藏 近世國語 文獻資料의 綜合的 研究,” 「韓國文化」 15 (1994. 12), 1-55.

6) 安賢珠, “朝鮮時代に 刊行된 「論語」의 板本에 관한 研究,” (碩士學位論文, 全南大大學院 2002).

鄭王根, “朝鮮時代に 刊行된 「大學」의 板本에 관한 研究,” (碩士學位論文, 全南大大學院 2003).

7) 南權熙, “朝鮮中期부터 舊韓末까지의 口訣資料에 대한 書誌學的 研究,” 「書誌學研究」 18(1999. 12), 464-466.

백두현, “窮儒寒士本 孟子諺解에 대하여,” 「용연어문논집」 제6집(1993. 8), 159-174.

정승혜, “가난한 선비들의 四書諺解,” 「문헌과해석」 25 (2003. 겨울), 199-212.

옥영정, “17세기 개인출판의 四書諺解에 관한 고찰,” 「書誌學研究」 27(2004. 6), 187-209.

8) 韓國精神文化研究院 編, 「17세기 국어사전」 (성남: 동원구원, 1995).

이 연구는 이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1차적으로 서지적 분석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17세기에 간행된 사서언해의 주요 판본을 조사하여 각 간본에 대한 개괄적인 분석 및 계통을 정리하고자 한다. 아울러 17세기의 대표적 사서언해 간본인 경서자복각본에 대한 새로운 검토를 시도하고 올바른 판본계통과 그 판각 방식에 대한 몇 가지 새로운 사실을 고찰하여 관련 분야연구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

2. 17세기 사서언해의 간행

2.1 四書의 간행과 諺解

고려 후기에 수용된 성리학은 유교를 국시로 삼은 조선시대에 지배적인 사상이 되었고 그만큼 성리학 경서는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성리학 경서 중에 가장 널리 읽힌 책은 「小學」과 「四書五經」이었다.

四書의 간본으로 현재까지 기록상으로 가장 빠른 시기의 것은 고려말의 문신 권부가 간행하여 유포한 주희의 「四書集註」이지만⁹⁾ 현전하지 않고 있다. 조선시대 간본으로 사서는 1415년 명나라에서 간행된 「四書五經大全」의 복각본이 주를 이루고 있다. 명의 永樂帝는 胡廣 등의 학자를 동원하여 1403년 「四書五經」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집주를 모아서 「四書五經大全」을 만들고 그 밖의 성리설들을 모아 「性理大全」을 편찬하였다.

「四書五經大全」은 조선 건국초기 세종연간에 3차례나 수입되었고 1426년 두 번째 수입되고 난 이듬해인 1427년에 四書와 五經, 性理大全 등으로 나뉘어져서 영남, 호남, 강원감영에서 각각 판각하게 하였다. 그 중에 四書는 강원감영에 판각하게 하여 2년 후인 1429년 4월 「四書大全」50권을 인출하고 중앙으로 보내게 된다.¹⁰⁾ 중앙에서는 이를 頒賜하였으며 각 지방에서 이를 저본으로 다시 판각

9) 「高麗史」卷107, 列傳 第20 權溥.

10) 「世宗實錄」卷43, 11년 4월 丁酉條.

을 거듭하여 전지역에 수많은 판본이 유통되게 되었다.

四書의 諺解는 사서관본의 간행 유포 노력과 함께 이루어진 한문본 사서의 국역화 작업으로서 구결과 언해에 대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경서에 구결을 붙이는 작업은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행하여져 왔으며, 조선 초기에 이미 사서에 대한 구결을 정하고 교정까지 한 기록이 보인다. 즉, 세종은 1448년에 직제학 金汶에게 四書를 번역하도록 하였으나 그가 일찍 죽자 집현전의 천거를 받아 당시 尙州使 金鈞를 불러 번역작업을 이어가도록 명하였다.¹¹⁾는 기록이 있고, 세조때에는 鄭麟趾, 申叔舟, 丘從直, 金禮蒙, 韓繼禧, 崔恒, 徐居正 등에게 명하여 사서오경을 나누어 주고 옛 것을 고찰하고 지금에 증명하여 구결을 정하여 올리게 하였다.¹²⁾ 또한 이에 앞서 宰樞에게 나누어 명하기를 四書五經 및 左傳의 구결을 내놓게 하고 이를 여러 유신에게 교정하한 기록도 전해진다.¹³⁾

四書 전체에 대한 언해는 宣祖년간에 이르러 결실을 보게 되는데 宣祖는 당시 「四書五經」에 대한 口訣, 諺解가 학자마다 다르고 확정되지 못한 것을 우려하여 1573년 眉巖 柳希春에게 「四書五經」에 대한 吐와 釋을 모두 상정해서 올릴 것을 명하였다. 미암은 자신의 역량이 적고 임무가 무겁다는 이유로 이를 사양하고 栗谷 李珥를 적임자로 추천하였다.¹⁴⁾ 율곡은 학문있는 선비들과 의논하여 만들어야함을 이야기하고 그 이전에 이루어 놓았던 「大學吐釋」에서부터 언해작업을 시작하였다. 그 이후 율곡은 四書에 대한 언해를 완성하였으나 이는 당시에 간행되지 못하고 후에 1745년 흥계회에 의하여 「四書栗谷諺解」로 간행되었다. 선조는 율곡이 언해작업을 채 마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자 1585년에 교정청을 설치하고 李山海 등 교정청 관원 31명에게 四書의 언해를 명하여 1588년 10월에 완성을 보았다.¹⁵⁾ 이후에 이를 간행하여 마침내 頒賜가 이루어졌으며, 도산서원에 반사된 서책의 내사기록이 1590년 7월이므로 책의 간행은 1589년 ~ 1590년

11) 「世宗實錄」卷119, 30年 3月 戊申條, 癸丑條.

12) 徐居正, 「徐四佳全集」補遺, 崔文靖公碑銘.

13) 「世祖實錄」卷38, 12年 2月, 辛巳條.

14) 「宣祖實錄」卷10, 9年 4月 丁卯條.

15) 「宣祖實錄」卷22, 21年 10月 己酉條.

사이에 이루어진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 때부터 사서언해는 조선후기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간행되었으며 17세기의 사서언해간본도 대부분 이 경서자본 사서언해의 형식과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2.2 17세기 사서언해의 주요 간행상황

17세기는 16세기 성리학적 사회윤리가 보급되고 16세기 중반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한 주자성리학이 활성화된 시기이다. 성리학의 經書 중에 조선시대 가장 널리 읽힌 것은 四書五經이었으며, 사서오경 중에서도 16세기 후반부터 朱子가 註를 붙인 四書三經이 중시되었고 그 중에서도 四書는 더욱 중요시되었다.¹⁶⁾ 四書의 諺解는 1590년 반사된¹⁷⁾ 經書字本을 필두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민심을 수습하고 백성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7세기에 도 여러 차례 간행되었다.

임진왜란은 정치·경제·사회의 전 분야에 걸쳐 엄청난 손실을 끼쳤으며 서적의 피해는 매우 심각하였다. 궁궐이 소실되면서 대부분의 소장처의 장서가 사라지고 상당량의 서책이 약탈되었다. 나라에서는 전후 각처에 남아 있는 서적을 수집하는 한편 중국으로 가는 사절단에게 도서를 구입하도록 지원하기도 하였다.

宣祖는 경서언해작업을 위해서 퇴계의 집에 가서 그가 고증한 사서오경을 찾아오도록 경상감사에게 분부한 일이 있었고,¹⁸⁾ 1600년에도 홍문관으로 하여금 四書諺解, 「孫子」, 「歷代兵要」, 「十九史略」, 「訓蒙字會」 등을 구하도록 지시하기도 하였다.¹⁹⁾

16) 金恒洙, “16世紀 經書諺解의 思想史的 考察,” 『奎章閣』 10 (1987), 17-40.

17) 도산서원에 반사된 經書字本 四書諺解의 내사기록(萬曆十八年七月日 內賜禮安陶山書院大學(中庸, 論語)諺解一件 左副承旨臣李[手決])으로 확인할 수 있다. 사서언해 중 「孟子 諺解」는 내사기록이 떨어져 나가고 없지만 동일한 형태적 특징을 보이고 있으므로 사서언해가 함께 같은 날짜에 반사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경서자본 사서언해는 도산서원 이외에 임고서원, 고려대 만송문고, 성암고서박물관 등에도 소장되어 있다.

18) 「宣祖實錄」卷8, 7年 10月 庚申; 미암집 권2 일기

19) 「宣祖實錄」卷22, 33年 2月 丁丑.

또한 1610년에는 승지를 지낸 朴震元(1561 ~ 1626)과 국사를 논하는 자리에서 영호남의 종이 생산되는 고을로 하여금 四書와 『詩傳』의 諺解 중 아직 완간하지 못한 권책과 『小學諺解』 등을 刊行 하여 반포하는 내용을 상의하기도 하였다.²⁰⁾

특히 宣祖, 仁祖朝에는 經書, 教化서, 醫書 등을 중심으로 많은 언해서가 발간 되는데 教化서의 언해사업이 백성들이 쉽게 이해하고 유교윤리 강화와 사회기강 확립이라는 목적이 있었다면, 경서의 경우는 그러한 목적 외에도 임진왜란 등 전쟁을 거치는 동안 사회전반의 변화와 함께 사대부를 대상으로 한 표준 교재의 정비의 필요성에 의해서 간행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1631년에 경서와 언해서를 반사하기에 앞서 鏡城의 유학 최상례 등이 올린 상소를 살펴보면,

“北路의 9개 郡 가운데 鏡城이 가장 큰 都會인데, 학교를 세우더라도 풍속이 弓馬를 숭상하여 組豆를 일삼지 않으니, 이는 대개 서적이 거의 드물어 글을 강론하고 익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지난 대평한 날에는 국가에서 각종 서책 및 사서 삼경과 언해서까지 나누어 보내주어 句讀를 익히는 선비에게 편리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諸生이 배우고 익혀 鄉黨에서 행실을 닦은 자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 뒤로 서적이 온통 없어져서 앞으로 무식하고 예의가 없어지게 됨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경서와 언해를 각각 1 건씩 頒賜를 허락하여 배우고 익히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소서.”하니, 상이 허락하였다.²¹⁾

고 하여 당시의 상황과 경서보급의 의의를 파악할 수 있다.

17세기는 전란을 격고난 후라 체계적인 보급정책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였지만 인쇄된 서적은 史庫와 중요부서에 우선 보급하였다. 국가에서 우선적으로 보급한 것은 유교윤리강화를 위한 教化서, 경서였으며, 그 중 教化서는 『三綱行實圖』, 『小學』 등이 중심이 되었고 경서는 四書諺解와 『孝經』 등이 대표적이었다.²²⁾

17세기 사서언해의 간행은 간행에 관련한 기록과 현전하는 내사본을 통하여 그 시기를 확인할 수 있다. 간행의 상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현전하는 것 중에 가장 이른 시기의 것으로는 1608년에 濟州에서 간행한 『中庸諺解』가 있고, 이후

20) 『宣祖實錄』 卷25, 38年 11月 癸酉條.

21) 『仁祖實錄』 卷25, 9年 2月 壬辰條.

22) 신양선, 『조선후기 서지사 연구』 (서울: 혜안, 1996). 93.

로 광해군 3년인 1611년에 목활자로 간행된 「대학언해」가 있다. 이듬해인 1612년에 頒賜된 경서자 복각본이 있으며, 같은 계통의 판본으로 1631년에 반사된 사서언해가 있다.

또한 1637년에는 개인이 간행한 사서언해가 있으며 기존에 알려진 사서언해의 판식, 내용과는 달리 독특한 양식과 편찬의도를 보이고 있다.

숙종 10년인 1684년에도 사서의 언해가 간행되었는데, 그 해에 한문본 四書三經과 「心經」, 「近思錄」과 함께 간행하였고 같은 해의 내사기가 있는 「中庸諺解」와 「大學諺解」가 전해진다. 1695년에 이르러서는 금속활자인 무신자로 간행된 사서언해가 등장한다. 간행년대를 확정할 수는 없지만 성암고서박물관 소장의 무신자본 「中庸諺解」의 내사기기록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四書諺解 전체를 간행하지 않았지만 1693년에는 元宗字本 「孟子諺解」도 頒賜되었다. 원종자는 인조의 아버지 元宗(1580 ~ 1619)이 쓴 글씨를 바탕으로 만든 금속활자로 1693년의 내사기기록이 있는 판본이 남아있어서 그 간행년대를 추정할 수 있다.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17세기 간행 사서언해의 계통 및 서지적 특징을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다.

2.3 17세기 사서언해 주요 간본의 계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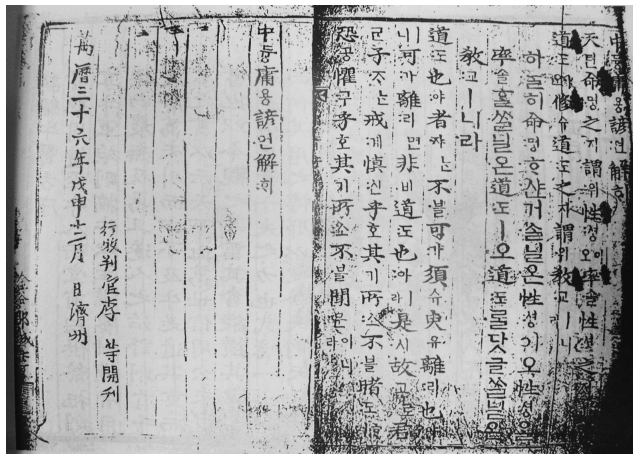
17세기에 간행된 사서언해로 현전하는 것은 목활자본, 목판본, 금속활자본 등이 남아있다. 목활자본은 1611년에 반사된 「大學諺解」가 있고, 목판본으로는 16세기에 간행된 경서자본의 복각본 여러 종류와 1637년에 개인이 간행한 것이 현전하고 있으며, 금속활자본은 戊申字와 인조의 아버지인 元宗의 글씨를 바탕으로 제작한 元宗字本이 전해지고 있다.

또한 17세기의 사서언해는 원종자본 「孟子諺解」와 초기에 간행되어 전해지는 것을 제외하고 사실상 사서언해가 한꺼번에 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현존본을 대상으로 하여 시대순으로 각 언해본의 계통을 정하고 형태적 특징과 간행시기, 특징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3.1 1608 년 濟州牧 간행 「中庸諺解」

이 책은 경서자본의 복각본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1608년 濟州에서 간행되었다. 권말에 “萬曆三十六年 戊申十二月日 濟州 / 行牧判官 李 等 開刊”의 간기가 있고 방점을 그대로 번각한 부분도 일부 보인다.²³⁾ 17세기 초기에 간행된 사서언해의 판본으로서 현전 자료 중에서는 가장 이른 시기의 것에 해당한다. 17세기 초에 제주 향교에서 보관한 책판 기록에도 나타나며 이 책과 더불어 「大學諺解」의 간본도 함께 있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²⁴⁾

경서자본의 복각본 계열임을 알 수 있지만 사서언해가 모두 간행되었는지 알 수 없고 간기가 남아있는 지방 판본이므로 별도로 구분하여 보았다. 濟州牧 간행 「中庸諺解」의 서영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1608년 제주간본 「中庸諺解」

23) 南權熙, “濟州道 刊行의 書籍과 記錄類,” 『古印刷文化』 제8집 (2001), 219-252.

24) 1653년에 간행된 「耽羅志」倉庫條 冊板庫에서 제주향교에 보관된 책판기록 중에 「大學諺解」와 「中庸諺解」를 확인할 수 있다. 「耽羅志」는 濟州牧, 旌義縣, 大靜縣의 읍지로 1653년에 「東國輿地勝覽」및 金淨의 「濟州風土錄」을 참고하여 도내의 상황과 시문을 편집한 것이며, 제주목사 이원진이 편찬하고 고홍진의 감교로 완성되었다.

2.3.2 1611년 內賜本 「大學諺解」

1611년 내사본은 校書館에 頒賜한 「大學諺解」¹ 책이다 “萬曆三十九年七月日 內賜大學諺解一件校書館上”의 내사기가 있으며, 훈련도감자본으로 알려져 있는 판본이다. 같은 판본으로 간행된 논어, 맹자, 중용의 언해본이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으며, 1612년에 반사된 논어, 맹자, 중용의 언해본은 경서자의 복각본으로 이 책과는 판본의 계통이 다르다. 1631년에 판각되고 반사된 「大學諺解」가 이 책의 복각본으로 알려져 있지만 판각의 크기, 권말제의 위치가 다르게 나타난다.

다른 언해본과 별도로 「大學諺解」가 먼저 간행보급된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같은 판본으로 간행되어 같은 날에 교서관등에 반사된 「內訓」 3책이 전해지고 있고, 중용과 논어의 언해는 그 이듬해 9월, 맹자 언해는 12월에 각각 반사되는 것으로 보아 이 시기에는 사서언해를 한꺼번에 간행하지 않고 다른 교화서적과 함께 간행보급의 우선순위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간행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 책이 지니는 또 다른 특징은 대부분이 목활자인 본문의 내용에 금속활자의 쓰임이 있다는 사실이다. <그림 2>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마모가 있기는 하지만



<그림 2> 1611년 내사본 대학언해

而(1張 前面 第9行 第3字), 慮(1張 前面 第9行 第13字), 近(1張 後面 第6行 第11字) 등의 글자가 금속활자임을 알 수 있으며 가늘고 단정한 느낌을 주는 자양이나 간행시기를 고려해볼 때 經書字일 가능성이 높다. 이는 이 시기까지도 을해자체 경서자 또는 그 이전의 금속활자 일부가 남아있었고 책의 간행에 쓰여졌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2.3.3 經書字本の 복각본

경서자본의 10行19字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간본으로 경서자본의 복각본이 전해지고 있다. 기존에는 경서자본 계열의 훈련도감자본과 그 복각본으로 알려졌지만 이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서자본의 복각본 및 같은 체제의 개간본임이 밝혀졌다.

이 계통의 책은 간행시기가 밝혀진 것으로 17세기에만 최소한 2차례이상 간행되어 보급된 것으로 파악된다. 첫 번째는 1612년에 간행되고 반사된 경서자본의 복각본이며, 두 번째는 1631년 청주에서 간행되어 중앙으로 올린 간본으로 앞서 판각된 판본을 일부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판본이다.

한편 1684년 성균관에서 간행하여 배포한 것도 전해지고 있는데 1684년 간본은 行字數, 장수의 변동없이 경서자의 체제를 유지하였지만 복각하여 간행한 것이 아니라 새로이 개간하여 간행한 것으로 파악된다.

경서자 복각본 계열의 판본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보다 상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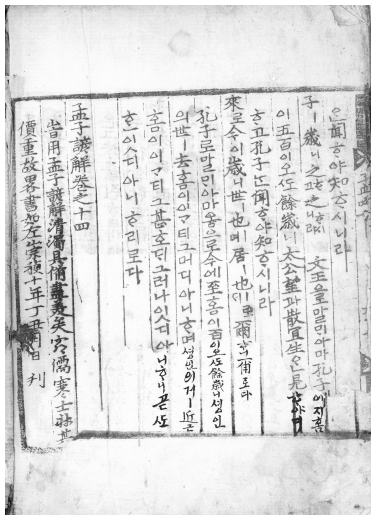
2.3.4 1637 년 개인간본

1637년 개인간행의 사서언해는 기존에 알려진 사서언해의 판식, 내용과는 달리 독특한 양식과 편찬의도를 보이고 있는 판본이다. 사서언해 중 「孟子諺解」 권말에 나타나는 간행기록에 의거하여 “窮儒寒士本” 또는 “寒士本”으로도 알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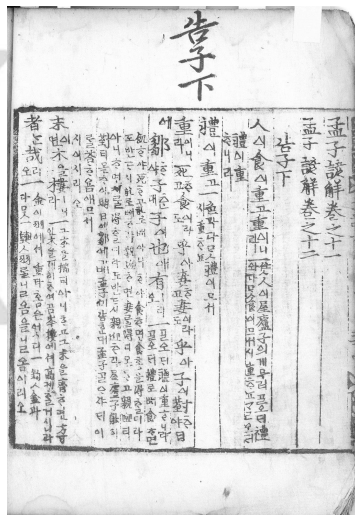
져 있는 이 책은 처음에 「孟子諺解」만을 대상으로 처음 발굴하여 조사되었고
이어서 동일한 양식의 「大學諺解」, 「中庸諺解」가 잇달아 확인되고, 일부만 알려
졌던 「論語諺解」의 나머지 부분도 찾게 됨에 따라 사서언해 1질이 동일한 주체에
의해 모두 간행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이 판본은 관판이 아니라
개인에 의하여 간행된 것으로 地方刊本の 특징을 보이고 있고, 판매용으로 간행
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坊刻本이나 書肆관련 연구에도 참고할 수 있을 것으
로 여겨진다(그림 3, 4 참조).

이 책의 현전본은 장서각, 규장각, 경북대, 영남대, 계명대 등의 기관 및 개인에
소장되어 전해지고 있으며, 책의 구성은 「論語諺解」 2책, 「孟子諺解」 2책, 「中庸
諺解」와 「大學諺解」 1책 합쳐서 모두 5책의 목판본이다. 표지서명이 기록된 것
도 있고 많아서 보이지 않는 것도 있으며 본문의 첫 장이나 마지막장이 落張된
것도 있지만 여러 기관에 소장된 동일본으로 모두 확인할 수 있다.

판심제가 각 서명별로 달리 나타나며, 책의 크기는 가로 28~30cm, 세로
20~23cm로 책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半郭의 크기는 가로 세로가 모두



<그림 3> 1637년 간본 「孟子諺解」권말



<그림 4> 1637년 간본 「孟子諺解」

18~19cm로 정해진다.

四周單邊에 有界이며 한면이 13行으로 이는 다른 언해본과 형태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큰 특징이다. 자수는 각 행에 24자 내외로 일정하지 않다. 版心の上下에 모두 大黒口가 있고, 上下內向의 二葉花紋魚尾가 대부분이지만 三葉이나, 반달모양의 어미가 일부 섞인 것도 있다. 紙質은 얇은 楮紙이며 발끈폭은 1.5~2.1cm이다.

각 서책별로 형태적 특징을 살펴보면 판심제가 각각 ‘孟吐’, ‘論吐’, “中吐”, “大吐”이고, 「맹자언해」의 제 2책에만 간행과 관련된 기록이 있으며 권14의 권말에 “時用孟子諺解清濁具備盡美矣窮儒寒士病其價重故略書如左崇禎十年丁丑月日刊”이라 하여 간행의 동기와 시기를 알려주고 있다.

「中庸諺解」와 「大學諺解」는 1책으로 합본되어 있는데, 표지서명은 ‘庸學解’이고, 「中庸諺解」16장, 「大學諺解」10장이 순서대로 묶여 있다.

이 책의 간행시기는 「孟子諺解」하권 권말의 간행기록과 서책의 형태와 내용으로 확정지을 수 있다. 즉 “崇禎十年(1637)丁丑月日刊”의 간기가 있으며 당시의 판식, 언해에 쓰인 한글의 사용시기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이 시기에 판각되어 인출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사서언해는 내용을 함부로 바꾸지 못하는 경서간행의 일반적 관례에 비추어 볼 때, 다른 경서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특징이 있다. 내용의 구성은 교정청 간행의 경서자본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동일한 본문을 한문과 언해문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경서자본에는 한문과 언해문에 쓰인 한자마다 그 독음이 달려있지만 이 책에는 한자음이 없다.

언해부분은 모두 싹고 있고 한문본은 축약하였으며 그 축약의 방식이 내용을 요약한 것이 아니라 각 문장의 주어와 각 구절의 끝 글자만 취하고 이어지는 구절을 함께 달고 있다. 이러한 축약의 방식은 다른 경서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러한 방식으로 줄여져 있어서 漢文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각 구절의 끝 글자를 취하는 원칙을 지키고 있고, 이어지는 구절을 반드시 달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경제적인 측면 외에도 문장을 거의 외우다시피

한 학자가 끝 글자와 구결로 문장을 이어가는 것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문장을 축약한 것 외에도 경제성을 고려한 것으로는 한문이 끝나고 언해문으로 바뀔 때 行을 바꾸지 않고 이어서 사용한 점, 일부분이지만 언해부분을 1행에 2줄씩 넣어서 판각하거나, 권차가 바뀌어도 새로운 張의 첫 行부터 시작하지 않고 그 다음 行에 이어서 시작하거나, 심지어 권차의 표시도 생략하는 것 등이다. 즉 책값을 낮추기 위하여 한문으로 된 대문의 내용을 줄이고 빈 여백이 거의 없이 내용을 채우고 간행한 것이 이 책의 가장 뚜렷한 특징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면을 고려한 것으로 각 책의 본문에는 편찬자의 이러한 노력들이 곳곳에 나타난다.

조선시대 사서언해의 간행에 있어서 중앙이나 지방관아의 주도가 아닌 민간에서 이루어진 예는 이 책이 처음일 것으로 여겨진다. 그 판형이나 체제가 내용을 함부로 바꾸지 못하는 경서 간행의 일반적 관례에 비추어 볼 때, 다른 經書에서 그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독특하다는 점도 이 책이 지니는 큰 특징이다. 이는 18세기로 넘어가는 시점인 1695년의 무신자본에 이르러서야 판형과 行字數가 바뀔 정도로²⁵⁾ 형식의 변화가 거의 없는 시기임을 감안한다면 대단히 큰 변화라 할 것이다.

2.3.5 1684년 내사본

1684년에도 사서의 언해가 간행되었는데, 실록에는 그 해에 四書三經과 諺解, 「心經」, 「近思錄」과 함께 간행하였다는 기록²⁶⁾이 보이고 이 해의 내사기²⁷⁾가 있는 「中庸諺解」와 「大學諺解」가 규장각과 전남대 각각 전해진다. 또한 四書諺解 등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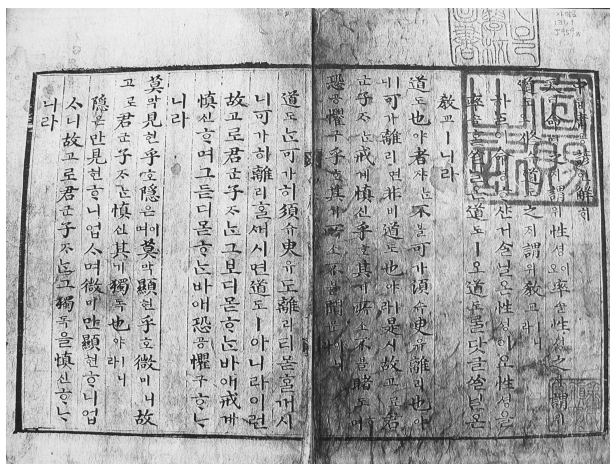
25) 이전에는 經書字本の 영향으로 대부분 10行19字이며 戊申字本 이후부터 10行17字로 行字數의 변화를 보이기 시작한다.

26) 「肅宗實錄」卷十五上, 十年 甲子 五月十二日 丁丑. …成均館啓刊 四書三經大全諺解及 心經 近思錄…

27) 규장각본은 康熙二十三年十月十六日 金萬基(1633~1687)에게 내린 것이며, 전남대본은 같은 날 金錫翼(?~1686)에게 내린 것이다(康熙二十三年十月十六日 內賜同知敦寧府事 金錫翼 大學諺解一件 命除謝恩 右承旨臣李[手決])

간행에 소요되는 종이(楮注紙, 厚白紙 등)를 三南에 分定하여 마련하기를 청하는 宣惠廳의 啓(28)를 통하여 성균관에서 간행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이때 간행된 사서언해 인출을 위하여 필요로 한 종이의 종류, 수량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책의 형태사항은 四周雙邊에 界線이 있고 10行 19字, 版心은 上下內向花紋魚尾인데 어미가 복잡하고 다양하게 나타난다. 경서자복각본인 1631년본과 간행년대의 차이가 있지만 방점과 “△”, “○”을 사용하지 않는 것과 음절말 ㄷ, 병서의 표기에 서 앞선 판본과 차이를 보이는 것을(29) 제외하면 내용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그림 5 참조). 그리고 行字數, 장수의 변동 없이 경서자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였지만 복각하여 간행한 것이 아니라 새로이 개간하여 간행한 것으로 파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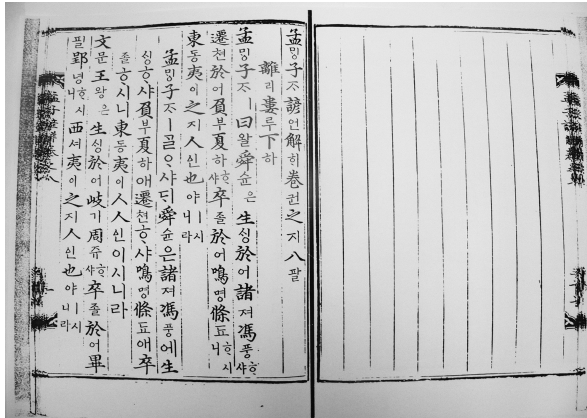
<그림 5> 1684년 내사본 中庸諺解

- 28) 「承政院日記」 肅宗 10年6月9日 癸卯. …宣惠廳啓曰 司憲府啓辭內云云事 命下矣 成均館所刊四書諺解 周易諺解 今已畢刻 進上十件 以楮注紙 國用三十件 以厚白紙磨鍊 則楮注紙三百十二卷 厚白紙九百三十六卷 以此數爲先分定三南 而其餘書冊 則姑待畢刻 更爲磨鍊 分定 何如 答曰 允.
- 29) 1612년, 1631년 「中庸諺解」 간본의 ‘믿디(信 50a)’가 ‘밋디’로, ‘일쓰기(47b)’가 ‘일 쓰기’ 등으로 표기되고 있다. 또, 어휘의 선택에서도 차이를 보여서, 1612년, 1631년간본에서는 ‘恥’를 ‘뭇그리움(26b)’으로 번역하는 데 반하여 이 책에서는 ‘뭇그리움’이 사용되고 있다 (서울大學校 奎章閣 編, 「奎章閣所藏語文學資料」, 서울:서울 大奎章閣, 2001)

2.3.6 元宗字本

원종자는 인조의 아버지 元宗(1580~1619)이 쓴 글씨를 바탕으로 만든 금속활자로 인쇄를 찍기 위해 한글활자도 주조하였다. 원종의 예리한 필서체 특징이 잘 나타나 있으며 『板堂考』의 기록에 “孟子眞書字 5,594字, 孟子諺書4,605字”의 기록이 있어 주조당시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 권말에 있는 “元宗大王御書孟子諺解跋”을 보면 이 판본은 원종이 직접 베껴 쓴 『孟子大文』과 『孟子正音』을 모사하여 자본으로 삼고 부족한 글자는 숙종이 補瀉하여 만들었다고 하였다(그림 6 참조).

이 활자로는 四書의 다른 간본은 간행되지 않고 『孟子大文』과 『孟子諺解』만 전해지고 있으며 장서각, 규장각, 성암고서박물관, 프랑스동양어학교 등에 『孟子諺解』 인본이 남아 있다. 이중에 규장각, 성암고서박물관 소장본에 기록된 1693년의 내사기록³⁰⁾이 있고 『承政院日記』의 기록 중에 “원종의 御筆 孟子諺解를 개간할 때 監董했던 韓信國 등에게 熟馬 1필을 시상하라”는 비망기³¹⁾가 있어서



<그림 6> 1693년 원종자 「孟子諺解」

30) 성암본은 1693년 沈粹(1624~1693)에게 반사한 것이며, 반사기록은 “康熙三十二年九月十四日 內賜判中樞府事 沈粹御筆孟子諺解一件命除謝恩 左承旨臣權 臣決”이다. 규장각 소장본은 같은 해 李重夢에게 반사한 것이다.

31) 『承政院日記』 肅宗19年 1693年 10月 3日.

그 간행년대를 확정지을 수 있다.

형태사항은 四周雙邊에 10행19字본이며 版心은 上下內向三葉花紋魚尾이다. 방점과 “△”, “◊”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2.3.7 戊申字本

금속활자인 무신자로 간행된 사서언해이며 1695년에 반사된 성암고서박물관 소장 「中庸諺解」의 내사기³²⁾로 간행년대를 추정해 볼 수 있다.

형태사항은 四周雙邊에 10행17字본이며 版心은 上下內向四瓣黑魚尾이다. 이전의 17세기간본과 달리 10행 17자본이며 이후로 간행된 사서언해의 대부분이 이를 따르고 있다. 18세기에 간행된 무신자본과는 활자인면의 마모도, 인쇄의 선명도 등에서 보다 좋은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서 식별이 가능하며 방점과 “△”, “◊”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3. 經書字 覆刻本의 검토

3.1 1612년 내사본

경서자 복각본과 그 계통의 판본은 17세기 사서언해 간본의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는 것으로 당시 보급을 위해 중앙에서 판각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최소 3차례이상 간행되어 보급된 것으로 파악되는데 그 첫번째가 1612년에 반사된 경서자본의 복각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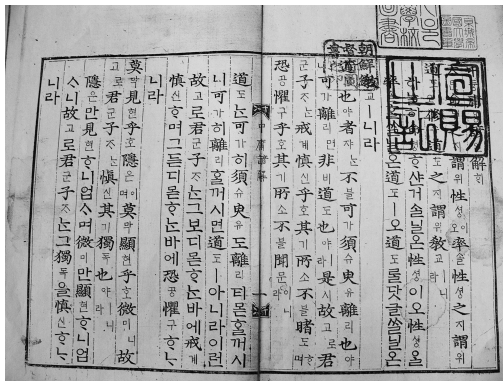
현전본은 1612년 9월에 校書館, 太白山史庫, 五臺山史庫에 반사한 「中庸諺

32) 1695년 당시 사헌부대사헌이었던 尹摺(1631~1698)에게 반사된 책으로 “康熙三十四年三月十七日內賜司憲府大司憲 尹摺 中庸諺解一件 命除謝恩 右承旨臣李[手決]”의 내사기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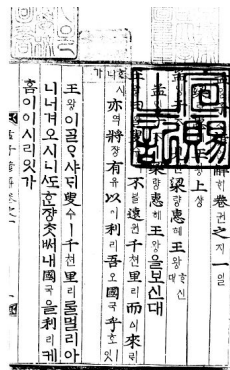
解』와 妙香山史庫, 太白山史庫, 五臺山史庫, 江華史庫에 반사한 「論語諺解」가 서울대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같은 판본의 「孟子諺解」는 1612년 12월에 校書館, 太白山史庫, 五臺山史庫 등에 반사되었다.

이 책의 형태적 특징은 四周雙邊에 界線이 있고 10行 19字, 版心은 上下內向 三葉花紋黑魚尾 이다. 「中庸諺解」 1책, 「論語諺解」는 4권 4책, 「孟子諺解」는 14권 7책이다.

판본은 기존에 알려진 훈련도감자본이 아니라 경서자본의 복각본이며 경서자본을 저본으로 새롭게 판각한 판본이다(그림 7, 그림 8 참조). 현재 1612년본은 「大學諺解」를 제외한 「中庸諺解」, 「論語諺解」, 「孟子諺解」만 전해지고 있다. 「大學諺解」가 함께 간행되지 않은 것은 한해 전에 활자로 인쇄하여 반사한 책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7> 1612년 경서자복각본 中庸諺解



<그림 8> 1612년 내사 경서자복각본 「孟子諺解」

판각의 특징은 경서자본을 바탕으로 그대로 복각해낸 것으로 한자의 注音에 “△”이나 “○”의 表記가 유지되어 있고 경서자본과 내용이나 표기가 일치하지만, 방점의 표기가 없다. 또한 판심의 어미에 각수의 표시로 보이는 몇 가지 유형의 부호와 글자가 중복해서 나타난다. “十”(上下魚尾), “口”(下魚尾), “双”(下魚尾), “亻”(上魚尾) 등이 대표적인데 1631년에 새롭게 판각한 판본의 어미에는 이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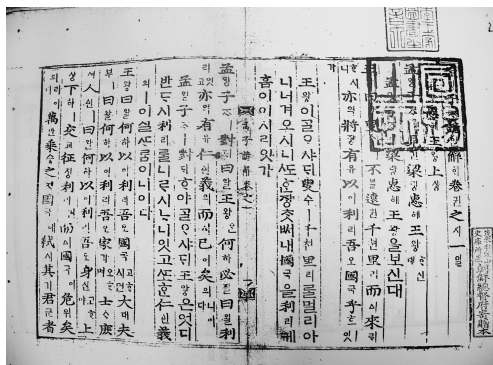
같은 모양의 글자가 나타나지 않는다.

3.2 1631년 내사본

1631년 간본으로는 한국학중앙연구원 藏書閣 소장본 중에 1631년 赤裳山 史庫에 頒賜한 「大學諺解」, 「中庸諺解」, 「孟子諺解」가 있으며³³⁾ “崇禎四年閏十一月日 內賜大學(中庸, 孟子)諺解一件 赤裳山上”의 내사기를 확인할 수 있다. 규장각본도 모두 같은 날 頒賜한 책들로 사서언해 전부를 확인할 수 있고, 侍講院, 春秋館, 五臺山史庫, 太白山史庫, 妙香山史庫, 江華府 등에 내려졌다.

1631년 간본은 당시 청주목에서 간행된 것으로 四書諺解 國用 70件的 粧幀이 本館에 당도하였다는 弘文館의 啓³⁴⁾와 이의 반사를 지시한 사실로 확인할 수 있다.

형태적 특징은 1612년 간본과 거의 동일하지만 어미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 책도 훈련도감자의 복각본이 아니라 경서자본의 복각본이며 새롭게 판각하되 기존에 1612년 판목도 함께 쓰인 것으로 확인된다(그림 9 참조).



<그림 9> 1631년 내사 경서자복각본 「孟子諺解」

33) 「論語諺解」도 있으나 內賜記 과 內賜印 이 없다. 같은 판본의 규장각 소장 내사본으로 같은 시기의 것임을 알 수 있다.

34) 「承政院日記」 仁祖9年11月25日 甲午. …鄭之羽 以弘文館言啓曰 公清道清州牧所印四書諺解國用七十件粧 到本館 何以爲之 敢啓 百官頒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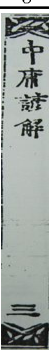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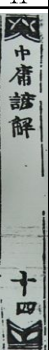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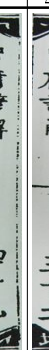
원판과 보판의 비중과 관련하여 각 판본에 대한 검토결과 『中庸諺解』의 경우 전체 55장 중 제 15, 16, 20, 21, 22, 37, 40, 41, 42장의 9장을 제외하고 모두 새롭게 판각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論語諺解』도 거의 빠짐없이 새로 판각하였으나 『孟子諺解』는 14권 7책의 많은 분량 중에 약 120장 정도만 새롭게 판각하고 나머지는 1612년 판목을 그대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이 판본에도 판심의 어미에 각수의 표시로 보이는 여러 가지 유형의 부호와 글자가 중복해서 나타난다. 그 유형이 1612년 간본 보다 훨씬 다양하며 같은 모양으로 중복해서 나타나는 판심은 동일한 각수에 의해서 판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본문의 새김도 판심의 유형에 따라 약간씩 차이난다. <표 1, 2, 3, 4>는 1631년에 반사된 四書諺解의 판심유형이다. 판심의 구분은 어미의 흑백, 魚尾內 무늬, 호, 선의 개수, 판심제 등으로 기준을 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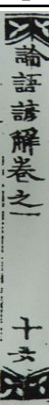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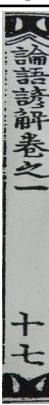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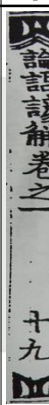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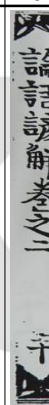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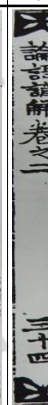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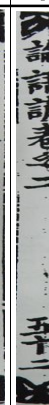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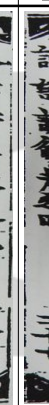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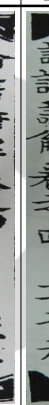
<표 1> 1631년 대학언해의 판심 주요유형

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판 심											
비고	1,2	3	4	5	6	7	8	9,10, 12	13	14	15,26

<표 2> 1631년 중용언해의 판심 주요유형

번호	1	3	8	9	10	11	12	20	21	23	27	29
판심												
비고	1	3,4,7,9, 32,39	11	12	13	14	15,16,20, 21,22,37, 40,41,42	28,29, 30,35	33,36, 38	43,44	49,50	52

<표 3> 1631년 논어언해의 판심 주요유형

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판심												
비고	18장	9장	5장	15장	13장	8장	31장	5장	7장	11장	18장	6장

<표 4> 1631년 맹자언해의 판심유형

번호	28	29	30	31	32	33	34	22	23
판 심									
비고	1-11,12,2-13,5-17,18,7-31,8-19,8-28,29,14-29,30,31,32,34	1-4,2-33,34,8-8,10-1,13-16	1-21,6-3,25,26,7-5,15,16,13-11	1-25,26,30,33,2-27,28,5-3,5,6,12,13,14,6-7,8,24,7-6,7,23,24,8-35,9-1,19,22,23,30,10-10,29,13-20,11-26,14-17,18,19,20,21,22,33	1-35,2-14,35,11-29,13-12	2-5,6,36,8-20,27,13-29	2-37,43,6-10,7-19	11-26,32	6-12,12-9

판각에 참여한 각수의 구성에 있어서 동일 인물이 여러 가지 유형의 부호와 문자를 사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각 유형마다 각기 다른 각수일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17세기 서적의 간행방식에 대한 명확한 기록이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뚜렷하게 구분되는 몇몇의 문자와 부호는 판각당시 각수의 구성과 작업방식에 대한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풀어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예컨대 중복해서 나타나는 부호나 문자는 17세기 판본에 유독 많이 나타나는 복잡한 형태의 어미가 단순히 양식적 혼란이 아니라 각수의 개성적 표현이거나 노임지급을 위한 식별표시라는 가정을 가능하게 해준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간행된 여러 간본 중에서 같은 유형과 모양의 어미를 확인하여 정리해보면 동원된 각수의 인원수와 전체적 규모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 외에도 간행시기와 주체를 알 수 없는 경서자본의 복각본 계통은 여러 소장

처에 零本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이 많이 있으며, 대체로 위의 2차례 간행범주 내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다 비록 새롭게 개간하였지만 1684년 내사본 계통의 사서언해도 行字數, 張數의 변동없이 경서자본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 역시 주요 간행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간행 시기가 파악되지 않은 자료로서 위의 판본을 다시 복각하거나 濟州간본과 같이 다른 지역에서 별도로 간행하는 경우처럼 또 다른 간본이 출현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이에 대해서는 보다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4. 결 언

이상과 같이 17세기에 간행된 사서언해의 간행상황을 점검하고 당시에 간행된 여러 판본 중 경서자복각본 계통의 판본을 조사하여 판본계통과 그 판각 방식에 대한 몇 가지 새로운 사실을 서지적인 측면에서 고찰하여 보았다.

경서자 복각본과 그 계통의 판본은 17세기 사서언해 간본의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는 것으로 당시 보급을 위해 중앙에서 판각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같은 계통의 판본이 여러 차례 간행되고 보급되면서 유교윤리 강화와 사회기강 확립이라는 기본적 목적 외에 사대부를 대상으로 한 표준 교재의 정비에도 그 역할을 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같은 서지적 분석을 기반으로 삼아 역사학, 국어학적 분석을 병행해나간다면 보다 정확하고 풍부한 내용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른 판본본과의 관련성 검토, 당시에 간행된 다른 판본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하여 각수 및 판각의 규모 등을 파악해낼 수 있다면 17세기 출판문화사를 이해하는데 보다 깊이 있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참고문헌>

<原典>

「高麗史」

「承政院日記」

「朝鮮王朝實錄」

「耽羅志」

<단행본>

부길만, 「조선후기 방각본 출판연구」, 서울: 서울출판미디어 2004.

서울대학교 奎章閣 編, 「奎章閣所藏語文學資料」, 서울: 서울대奎章閣, 2001.

신양선, 「조선후기 서지사연구」, 서울: 혜안, 1996. 93.

柳鐸一, 「韓國文獻學研究」, 서울: 아세아문화사, 1989.

이성무, 「한국과거제도사」, 서울: 민음사, 1997.

정형우, 「朝鮮朝 書籍文化研究」, 서울: 구미무역출판부, 1995.

漢陽대학교 韓國學研究院, 「大學諺解」(影印本) 서울: 同研究院, 1974.

漢陽대학교 韓國學研究院, 「論語諺解」(影印本) 서울: 同研究院, 1974.

漢陽대학교 韓國學研究院, 「孟子諺解」(影印本) 서울: 同研究院, 1974.

漢陽대학교 韓國學研究院, 「中庸諺解」(影印本) 서울: 同研究院, 1974.

韓國精神文化研究院 編, 「장서각한글자료해제」 성남: 同研究院, 2000.

韓國精神文化研究院 編, 「17세기 국어사전」, 성남: 同研究院, 1995.

<논문>

金相溟, “朝鮮朝 寺刹板 刻手에 관한 研究.” 博士學位論文 成均館대학교大學
院. 1990.

金恒洙, “16世紀 經書諺解의 思想史的 考察.” 「奎章閣」10 (1987), 17-40.

南權熙, “濟州道 刊行의 書籍과 記錄類.” 古印刷文化 제8집(2001), 219-252.

- 南權熙. “朝鮮中期부터 舊韓末까지의 口訣資料에 대한 書誌學的 研究.” 『書誌學研究』 18(1999. 12), 464-466.
- 백두현. “窮儒寒士本 孟子諺解에 대하여.” 『용언어문논집』 제6집(1993. 8), 159-174.
- 송정숙. “한국에서 論語의 수용과 전개.” 『書誌學研究』 20 (2000), 359-387.
- 송정숙. “조선조에 있어서 사서의 수용과 전개-대학과 중용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대학원, 1994.
- 安秉禧. “世祖의 經書口訣에 대하여.” 『奎章閣』 7 (1983), 1-14.
- 安秉禧. “中世語의 한글資料에 대한 綜合的 考察.” 『奎章閣』 3 (1978), 109-148.
- 安賢珠. “朝鮮時代に 刊行된 『論語』의 板本에 관한 研究.” 碩士學位論文 全南大大學院, 2002.
- 옥영정. “17세기 개인출판의 四書諺解에 관한 고찰” 『書誌學研究』 27(2004. 6), 187-209.
- 우정임. “조선초기 서적수입 · 간행고 그 성격- 성리학서를 중심으로-.” 『釜大史學』 24(2000. 6), 39-69.
- 李崇寧. “四書諺解 解題.” 『四書諺解』, 漢陽大學校 韓國學研究院, 1974.
- 李忠九. “經書諺解 研究.”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1990.
- 정승혜. “가난한 선비들의 四書諺解.” 『문헌과 해석』 25 (2003. 겨울), 199-212.
- 鄭王根. “朝鮮時代に 刊行된 『大學』의 板本에 관한 研究.” 碩士學位論文 全南大大學院, 2003.
- 정형우. “오경 · 사서대전의 수입 및 그 간행 광포” 『동방학지』 63(1989), 1-27.
- 정호영. “논어의 성립과정과 그 전래 및 보급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대학원, 1989.
- 韓榮均. “孟子諺解 異本攷.” 『울산어문논집』 제 3집 (1987), 19-30.
- 洪允杓. “奎章閣 所藏 近世國語 文獻資料의 綜合的 研究.” 『韓國文化』 15 (1994. 12), 1-55.